객관적 은퇴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준비도의 비교를 통한 은퇴준비자금 인지에 관한 연구

정 지 영(상명대 석사) · 양 세 정(상명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적 인지와 객관적 은퇴준비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고 은퇴준비도를 객관적 수준과 비교하여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65세 이하의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은퇴준비도의 경우 <충분하다/아니다>의 이분법이 아닌 <은퇴준비정도>를 백분율로 응답받아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면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주관적 은퇴준비도와 객관적 은퇴준비도의 차이를 줄이는 선행교육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편의 표집한 오프라인 서베이 및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비례할당제의 무작위 추출법으로 표집한 온라인 서베이를 통하여 기혼의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422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객관적 은퇴준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예상은퇴시기, 예상은퇴생활비(현재가치) 및 은퇴용 자산과 은퇴준비용 적립액을 함께 질문하여 노후필요자금과 노후준비자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빈도와 백분율, ANOVA와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고, 노후필요자금 및 준비자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응답자들의 data 값을 계산하였다. 이때 평균수명은 85세, 이자율은 4%로 물가상승률은 3%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연령, 수입, 평균소비성향별 노후준비자금, 노후필요자금, 객관적 은퇴준비도 및 주관적 은퇴준비도를 비교하면 인구통계학적 그룹별 객관적 은퇴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준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을수록 객관적 은퇴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준비도는 높아진다.

둘째, 다변량분석 결과, 주관적 은퇴준비도는 연령. 월수입, 은퇴용자산, 평균소비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객관적 은퇴준비도에는 응답자의 연령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예상은퇴나이와 예상생활비, 은퇴용 적립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관적 은퇴준비도는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지만 객관적 은퇴준비도는 그에비해 은퇴시점이나 은퇴준비 적립금액 등의 은퇴관련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주관적 은퇴준비도와 객관적 은퇴준비도의 충분 및 불충분 정도를 본 결과 주관적으로 은퇴자금준비가 충분(100%)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8명(4.3%)만 해당하였으며, 그 외에는 모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은퇴준비자금을 계산해 보았을 때 은퇴준비가 충분한 경우는 41명(9.7%)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본인의 은퇴준비가 스스로 얼마나 부족한지의 여부를 인지하고 적정한 은퇴준비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및 이자율 등 은퇴준비계산에 들어가는 많은 가정들을 표준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은퇴준비자금에 대해서는 거주부동산과 투자부동산을 정확히 반영하고, 생활비 외의 의료비까지 고려한다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